

[종합]

여천산단 바다 다이옥신 오염

방류수, 日 허용기준 3배이상 높아 추가적인 처리과정 없이 바다 유입

환경부, 전국 83곳 조사

고농도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여천 산업단지의 산업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5년 3월~2006년 10월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 83개 지점을 대상으로 물(수질)과 대기, 토양, 퇴적물의 다이옥신 잔류농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천시 월내동 여천산단 인근 폐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 일본 배출 허용 기준 보다 3배 이상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방류수는 추가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조사에서는 여천산단 내 환경관리공사 여천 사업소 제2처리장의 방류수에서 ㎖ 당 31.913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 환경기준 10pg/㎖ 보다 3배 이상 농도가 높다. 또 시화·안산공단 0.2~8.3pg/L, 구미산단 0.3~0.7pg/L, 포항산단 0.5~1.4pg/L 등 여타 공단에 비해 최고 200배 가

까지 높다.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는 여천공단이 63~80pg/g으로 일본 기준(1천 pg/g)보다는 낮지만 울산공단 1.3pg/g, 구미산단 0.1pg/g 등에 비해 높게 검출돼 공단별로도 수백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하나인 DEHP의 경우 토양 잔류농도가 여천 산단이 1천975µg/kg, 시화안산 528µg/kg, 포항산단 565µg/kg, 구미산단 288µg/kg, 울산산단 241µg/kg 등으로 검출한계 기준을 넘어섰다.

한편 다이옥신은 암·기형·피부병·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급성 독성 물질로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이자 '환경 호르몬'으로 불린다.

/임정형기자 jhlim@kwangju.co.kr

30대그룹 총수 부인 梨大 출신 최다

30대 그룹 총수 부인들의 이력과 신상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은 이화여대, 전교 과목은 미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문지 월간 CEO가 3일 밝혔다.

월간 CEO에 따르면 30대 그룹 회장 부인 또는 여성 회장 가운데 이화여대 출신은 9명, SK그룹 회장 부인 지순혜, 허창수 GS그룹 회장 부인 이주영, 현저현 동양그룹 회장 부인 이해경,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인 김희재 씨 등 13명이다.

서울대 출신은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부인 송광자,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부인 이경렬씨 등 6명으로 이화여대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대 출신 가운데 공대를 졸업한 노소영씨(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와 약대를 다닌 서영민씨(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를 제외한 4명이 미술 전공이어서 서울대 미대계 단일 단과대학으로는 가장 많은 총수 부인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 세계 7위 기술강국 진입

우리나라가 올해 중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대선정국을 맞아 사회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제 '올 10대트렌드' 주택가격 급격 하락엔 가계·금융부실 우려도

연구소는 반면 한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부정적 요인으로 ▲경기부진 속 저투자·저고용 지속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기업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력 가중 ▲사회 전반의 안전회귀 성향 강화를 들었다.

또 우리나라의 리스크 요인으로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의 표면화 ▲산별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등 등을 선정했다. 연구소는 2002년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127조6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180조2천억 원의 70.8%에 해당한다면서 유동성 축소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日 사과 촉구 3일 오후 수송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 첫 수요시위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기념 광주 '평화동산' 만든다

광주시가 '평화의 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한 평화동산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인다. 광주시는 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뮤직분수 옆에 270평 규모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평화의 동산과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에는 5억원이 투입되고, 6월께 완공된다. 시는 다음달 중 평화의 동산에 설치될 기념조형물을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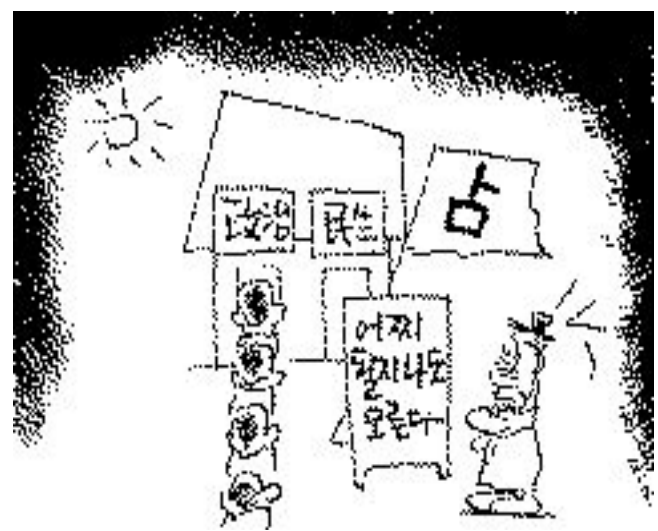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기념전시부스를 만들어 공동의장인 김대중 전 대통령·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의 기존연설문, 참가자들의 핸드프린팅 등 20여종의 기념품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중인 충장로 특화의 거리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핸드프린팅을 황동주물로 제작,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불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점쟁이도 알수 없다는 한해

광주에 LED 밸리 조성

(발광다이오드)

첨단단지 9만평...美 웨스팅하우스사 등 70개社 입주

세계적인 규모의 광주 LED(발광다이오드) 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산단단지 내 9만2천여평에 세계적 조형미인 웨스팅하우스사 등 70여개 LED 전문기업이 들어서는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3월 말 완공되면 관련 업체의 공장 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4~5차례의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수도권 40여개 업체와 4만4천여평의 부지 분양 계약을 마쳤으며, 9월에는 미국 최대 조형회

사인 웨스팅하우스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웨스팅하우스사는 LED밸리 7천500여평에 250억원을 들여 조인트 벤처방식의 '웨스팅하우스 LED 라이팅 시스템즈 코리아'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부지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6천200여평 규모의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도 건립,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집적화돼 있는 LED 업체들을 위해 협업생산 및 공동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청 공공기관 이전 '급물살'

유치원·초·중등 1곳씩 3월까지 개교... 본격 입주

전남도청 인근에 오는 3월까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1곳씩이 문을 열고, 아파트 입주 및 공공기관 이전작업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청 이전 2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남악신도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유입이 시작되면서 오는 3월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1곳씩 3개교, 그리고 9월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 등 2개교 등 총 6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남악신도시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9년까지 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5곳, 중등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1곳 등 모두 17개 학교가 들어선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남악리전 시빌 394세대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2월엔 대우 푸르지오 550세대가 입주할 시작하는 등 올 하반기까지 모두 4천847세대 1만5천여 명이 입주를 마치고 남악신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아파트는 오는 2019년까지 31개 블록에 1만7천56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악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75개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착공한 데 이어 오는 2월엔 전남도 여성플러자 공사가 시작되는 등 25개 기관·단체

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게 된다. 전남도는 건물을 임대·이전할 계획인 나머지 50개 기관·단체를 위해 올해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15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전체면적 2천5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빌딩'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 행정업무 중추도시·국도교역 중심도시·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신도시로,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토읍 일원 14.5㎢(440만평)에 오는 2019년까지 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문의전화: 220-0524, 0525. FAX: 227-9500. 81명 매매 2억(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

고지. 농어촌정비법 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경(농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임야를 경지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른 429만평. 4. 사업비: 총 6,565억 원. 5. 사업예정기간: 2007.02.04 ~ 2007.08.03 (180일). 6. 사업의 효과: 경(농지)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7. 사업시행자: 김길수. 2007년 1월 4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리 30번지 김길수 (연락전화 061-857-2464).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1월 2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2008학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대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명숙 강사!!. 광내영교육학. 개강 1월 6일(토)/주말반 광내영영생 저자직강. 마강 임박!! 2007년 EBS 초등교육학 대교 강사. 2007년 EBS 유초교과정 대교 강사.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임미선 유아교육과정. 개강 1월 12일(금)/종일반 임미선영생 영상. 현재 성황리 접수중. *한 번의 선택으로 선택, 기본이론, 심화, 뒤돌아보는 강의까지 듣는다.

산행안내. 1월 6일(토) ▲광주도요산악회 무주 덕유산 향리봉 1월 6일(토)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호남산악회 경남 현암 오봉산 현령봉 1월 7일(일)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보리마산악회 순천 조계산 1월 7일(일) 08시 광주역(현암 오봉산, 현령봉 정류소) 출발. ▲호남산악회 경남 현암 오봉산 현령봉 1월 7일(일)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거북이마산악회 순천 조계산 1월 7일(일) 08시 현암 오봉산 현령봉 정류소(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9일(화) ▲팔상산악회 전역 지상산 인사사정영유 1월 9일(화) 07시 40분 풍악동(백문도리리, 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영주산악회 죽곡역유산 1월 9일(화) 07시 30분 죽곡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10일(수) ▲정족산악회 정족산정사조기산 1월 10일(수)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14일(일) ▲술안산악회 능해 설악산(삼천포리)정유 1월 14일(일)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14일(일) ▲생신산악회 순창 김천산 1월 14일(일) 08시 정읍(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8일(일) ▲영문산악회 경남 포천군 벽강산 1월 8일(일)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1월 8일(일) ▲삼각산악회 전남 진도 칠왕산(진도대교삼곡정) 1월 8일(일) 08시 광주역(분대 회관 정류소) 출발.

임대성 전공수학. 개강 1월 8일(월)/종일반 임대성영생 저자직강. 현재 성황리 접수중. *해석학(오천만), 현대대수학(오우환), 확률과 통계(부로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 전문상담 진행. http://www.naeyoung.com. 새단장. 최적인 학습 환경구축. 개인 사물함, 스터디룸, 정독실, 개인 PC룸, 최적인 영상강의실 확보. 상담 전화 529-0090. 광주역과 무용정기장 사이(신안사거리).